



1 우리말 속에 잔재하는 일본어

1) 일본어 또는 일제 한자어가 우리말 속에 잔재하는 이유

- (1) 한·일 양국에서 모두 과거부터 한자를 터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자어의 수입에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에서 먼저 번역된 한자어들이 개화를 맞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던 신문물이나 신개념의 표현 수단으로서 별다른 저항감 없이 공급되었다.
- (2) 외국어는 선진 발명품이나 각종 문명의 이기와 함께 들어온다. 새로운 발명품 같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준 높은 학술적, 철학적 신개념들도 술어와 함께 도입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개화기나 근대화 과정에서 일제 한자어, 또는 일본어가 대량 도입되었다.
- (3)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에 일인 관리들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고,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들은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일본어만을 사용한 신문도 발행되었으며, 교육 기관들에서는 일본어로 교수 학습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했던 것은 일제 말기에 시행한 우리말 말살 정책이었다.

2) 특징별 일본어 잔재의 예

- (1) 일본에서 새로 만들어져 유행하는, 특히 한자어가 정치·경제·학술·문화·산업·기술·사회 전 분야에 걸쳐 침투됨〈문명, 문화, 학술어〉.
 - ㉠ 민주화, 반체제, 사건기자, 일조권, 잔업 수당, 인재(人災), 정보화 사회, 내구 소비재, 과(英)보호, 준준결승, 방어율, 자책전, 별책
- (2) 고유 일본어의 직접 차용
 - ㉠ 사시미(さしみ), 사라(さら), 모찌(もち), 아나고(あなご), 와리바시(わりばし), 히야시(冷やし), 마호(병)(まほう(びん)), 구두(くつ), 구루마(くるま), 노가다(どかた), 찌라시(ちらし), 소데나시(そでなし)
- (3) 일본어를 거쳐 온 중국어나 서양어
 - ㉠ 〈중국어〉 앙꼬(あんこ), 우동(うどん), 만두(まんじゅう), 장궤뽕(じゃんけんぽん)
 〈포르투갈어〉 카스테라(カステラ), 담배(たばこ), 뽕뿌라(てんぷら), 뽕(パン)
 〈스페인어〉 메리야스(メリヤス)
 〈네델란드어〉 뽕끼(ぺんき)
 〈불어〉 세무가죽(セーム革), 낭만(ロマン)
 〈영어〉 빠꾸(バック), 뽕꾸(パンク), 사라다(サラダ), 밧데리(バッテリー)
- (4) 2차 대전 후, 일본에서 만든 번역어의 차용
 - ㉠ 냉전(cold war), 죽음의 재(sand of death), 압력 단체(pressure), 국민 총생산(G.N.P), 성화(Olympic torch), 미시적(micro)
- (5) 일본이 만든 그릇된 영어나, 의미가 달라진 어휘의 차용
 - ㉠ 나이트(ナイター), 애프터 서비스(アフターサービス), 아베크(アベック), 가라오케(カラオケ)
- (6) 일본어를 거치는 동안 어형이 단축된 영어에서의 차용어
 - ㉠ 아파트(アパート), 텔레비(テレビ), 도란스(トランス), 미싱(ミシン), 파마(パーマ)
- (7) 혼종어인 일본어의 차용
 - ㉠ 식뽕(食パン), 돈까스(豚カツ), 야끼만두(焼き饅頭), 세라복(セーラー服)
- (8) 통사 층위의 관용적 비유의 차용
 - ㉠ 도토리 키재기(どんぐりの背比べ), 새빨간 거짓말(真っ赤な嘘), 손에 땀을 쥐다(手に汗を握る), 순풍에 돛을 달다(順風に帆を上げる),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다(欲に目が眩む), 이야기에 꽃이 피다(話に花が咲く)

(9) 통사 구조에 차이가 있는 일어식 구문 차용

- 예 ~에 다름 아니다(~にちがいない), ~있을 수 있다(ありうる), 보다 빠르게(よりはやく),
 뿐만 아니라(だけではなく) <‘보다, 뿐’이 문두에 오게 되었음.>

(10) 언어 의식에 영향을 받게 된 일어 잔재

- 예 4(四) = 죽음(死): 개화기 이후에 생김.
 18번: 歌舞伎의 대본 18중에서 유래되었으며 후에 일반 ‘장기’라는 뜻이 됨.

2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

● 반드시 순화여만 사용 ● 되도록 순화어를 사용 ●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어를 함께 사용

일본어투 용어	순화어	예문
가식[假植, かりうえ/かしよく]	● 임시 심기, 겉 심기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u>가식</u>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자.
간식[間食, かんしょく]	● 샐밥, 새참, 군음식	밥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또 <u>간식</u> 을 먹었다.
간지[感じ, かんじ]	● 느낌	표준화를 통해 고객이 세계 어느 지점을 가도 공통 <u>간지</u> 를 갖도록 공간 배치는 물론 공통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감안[勘案, かんあん]	● 생각, 고려, 참작	치열한 소매 환경을 감안할 때 태평양 같은 선두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다.
경어[敬語, けいご]	● 높임말, 존댓말	언론들은 일왕의 동정을 보도할 때 평어가 아닌 <u>경어</u> 를 쓴다.
계주[繼走, けいそう]	● 이어달리기	운동회 때 우리 반 달리기 <u>계주</u> 선수로 선발되었다.
고로케[←コロッケ, ㉠croquette]	● 크로켓	간식으로 감자 <u>고로케</u> 가 인기입니다.
남발[濫發, らんぱつ]	● 마구 냄	적절한 상황에서 꼭 필요할 때 써야지 <u>남발</u> 하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서 외면 받을 수 있다.
납기[納期, のうき]	● 내는 날	매달 관리비 <u>납기</u> 는 5일이다.
납득[納得, なっとく]	● 이해	저명한 박사의 창조론에 관한 반박은 <u>납득</u> 이 가지 않는다.
당분간[當分間, とうぶんかん]	● 얼마 동안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u>당분간</u> 축구를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당혹[當惑, とうわく]	● 당황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교수님은 <u>당혹</u> 스런 표정을 지었다.
대결[對決, たいけつ]	● 겨루기, 맞서기	철권 게임에서 동생과 나는 <u>대결</u> 을 펼쳤으나 내가 지고 말았다.
덴푸라[天婦羅, ←テンプラ ㉡tempero]	● 튀김	학교 앞 동뽕이하우스의 <u>덴푸라</u> 맛은 일품이다.
돈가스[←豚カツ, とんカツ(←cutlet)]	● 돼지고기(너비) 튀김(밥)	초등학교 때 박재성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 어머니의 <u>돈가스</u> 는 정말 맛있었다.
따불[←ダブル, double]	● 곰, 겹, 갑절	터미널 근처에 가면 택시를 타지 못해 <u>따불</u> 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뽕강[←癪癪, てんかん]	● 생떼	옆집 아이는 6살인데 어찌나 <u>뽕강</u> 을 잘 부리는지 밍상이다.

땡땡이[←點點, てんてん-]	● 물방울 (무늬) <의복>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땡땡이 무늬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레저[レザー, leather]	● 인조 가죽	현모가 새로 산 레저는 가짜처럼 보인다.
리아카[リヤカー, ←rear car]	● 손수레	6학년 주변 할 때 리아카를 한동안 끌었는데 참 힘들었다.
마후라[マフラー, muffler]	● ① 목도리 ② 소음기, 머플러	내 오토바이는 마후라 소리가 너무나 커서 타는 사람마다 시끄럽다고 말한다.
만땅[←満タン, ←tank]	● 가득 (채움/참)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울 때 흔히 “만땅이요!”라고 말한다.
매물[賣物, うりもの]	● 팔 물건, 팔 것	입법화가 늦춰지고 규제 완화 조짐이 보이면서 그동안 나왔던 매물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매상[賣上, うりあげ]	● 판매, 팔기	요즘은 대형 할인점이 많아서 동네 슈퍼는 매상이 통 안 오르고 있다.
매점[買占, かいしめ]	● 사재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생필품 매점 현상이 일어났다.
몸빼[←もんぺ]	● 일 바지, 왜 바지	어머니는 편하게 일하기 위해 몸빼를 입으셨다.
미손[←ミッション, ←transmission]	● 변속기, 트랜스미션	미손 오일을 넣어 주지 않아서 미손이 고장 나 버렸다.
баттери[バッテリー, battery]	● (건)전지, 축전지	баттери가 방전이 되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복지리[←鰻じる, ←河豚汁(ふぐじる)]	● 복국, 복싱건탕	어디 복지리 잘하는 집 없나요?
뽀스[←パンツ, pants/ ←pantaloons]	● 속잠방이, 팬티	나는 잘 때에는 뽀스만 입고 잔다.
뽀꾸[←パンク, ←puncture]	● 구멍(내기/나기), 펑크	아버지 차의 타이어에 뽀꾸가 났다.
뽀끼[←ペンキ, ㉮pek]	● 페인트	주말에 집에 뽀끼칠을 했다.
뽀록나다[←襦袢, ぼろー]	● 드러나다, 들통 나다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다가 뽀록났다.
사루비아[サルビア, salvia]	● 샬비어	사루비아의 원산지는 브라질이다.
사양[仕様, しょう]	● ① 설명(서) ② 품목	제품을 살 땐 사양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삿시[←サッシ, sash]	● (알루미늄)문틀/창틀, 새시	우리 집 삿시는 방음이 잘 된다.
센치하다[センチー, ←sentimental-]	● 감상적이다	가을이 되면 으레 사람들은 센치해진다.
소데나시[袖無し, そでなし]	● 맨팔(웃), 민소매, 소매 없는 옷	여름엔 소데나시를 즐겨 입는다.
소보로빵[そばろパン, そぼろ ㉮ pǎo]	● 곰보빵	소보로빵은 못생겼지만 맛은 달콤하다.
수갑[手匣, てじょう]	● (쇠)고랑	경찰이 도둑에게 수갑을 채웠다.
수당[手當, てあて]	● 덤삿	수당이 얼마 되지 않아 불만이다.
수속[手續, 手続き(てづき)]	● 절차, 순서	퇴원 수속을 밟으려면 병원비를 모두 내야 합니다.
수하물[手荷物, てにもつ]	● 손짐	트럭에 수하물을 규정량 이상 실으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순번[順番, じゅんばん]	● 차례	순번을 정해서 한 명씩 들어와라.

스시[鮓/壽司, すし]	● 초밥	생선이 신선해야만 <u>스시</u> 의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승강장[昇降場, ←昇り降り場 (のりおりば)]	● 타는 곳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옛 애인을 만났다.
승차권[乗車券, じょうしゃけん]	● 차표	기차를 탈 때 <u>승차권</u> 을 구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식상[食傷, しょくしょう]	● 싫증 남	드라마 내용이 너무 <u>식상</u> 해서 시청률이 낮다.
십팔번[十八番, じゅうはちばん]	● 단골 장기, 단골 노래	그녀의 <u>십팔번</u> 은 노사연의 '만남'이다.
쓰키다시[突き出し, つきだし]	● 겹들이 (안주)	이 집은 회보다 오히려 <u>쓰키다시</u> 가 더 맘에 든다.
압정[押針, ←押ピン(おしピン)]	● 누름 못, 누름 핀	게시판에 <u>압정</u> 으로 공문을 걸어 뒀다.
야리쿠리[遣り繰り, やりくり]	● 둘러대기, 꾸며 대기	그렇게 <u>야리쿠리</u> 하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역할[役割, やくわり]	● 소임, 구실, 할 일	이 곳에서 내 <u>역할</u> 이 무엇인고?
오뎅[←おでん]	● 꼬치(안주)	겨울에는 <u>오뎅</u> 이 최고야.
왔다리 갔다리[←いったりきたり]	● 왔다 갔다	저 고양이가 <u>왔다리 갔다리</u> 해서 정신없다.
우동[←饅頭, うどん]	● 가락국수	눈 내리는 저녁에 먹곤 하던 뜨끈한 <u>우동</u> 이 그립다.
운임[運賃, うんちん]	● 착상, 짐삿	고속열차 <u>운임</u> 은 비행기보다는 싸다.
운전수[運轉手, うんてんしゅ]	● 운전기사, 운전사	택시 <u>운전수</u> 는 친절하다.
육교[陸橋, りっきょう]	● 구름다리	육교는 횡단보도에 비해 도로 교통에는 도움을 주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시설이다.
이지메[苛め, いじめ]	● (집단) 괴롭힘	<u>이지메</u>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자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종지부[終止符, しゅうしふ]	● 마침표	이젠 어떻게든 일의 <u>종지부</u> 를 찍을 때가 됐다.
지리[←汁, じる]	● 싱건탕	시원한 <u>지리</u> 를 먹고 나니 속이 풀렸다.
지분[持分, ←持ち分(もちぶん)]	● 몫	이 회사 <u>지분</u> 의 반을 인수해서 경영권을 가질 생각이다.
지불[支拂, ←支拂い(しはらい)]	● 지급, 치름	음식값을 <u>지불</u> 하려고 지갑을 꺼냈다.
지양[止揚, しょう]	● 삼감, 벗어남 (철학)	우리는 상호 비방을 <u>지양</u> 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추리닝[←トレーニング, training]	● 연습복, 운동복	<u>추리닝</u> 을 입고 운동을 하였다.
축제[祝祭, しゅくさい]	● 축전, 잔치	마을 <u>축제</u> 를 알리는 풍물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었다.
출산[出産, しゅっさん]	● 해산	누나가 예쁜 딸아이를 <u>출산</u> 했다.
출산율[出産率, しゅっさんりつ]	● 출생률	<u>출산율</u> 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택배[宅配, たくはい]	● 집 배달, 문 앞 배달	김치 10킬로그램을 <u>택배</u> 로 보내려면 얼마나 드나요?
팔부[八分-, -ぶ-] 바지	● 팔 푼 바지	발목이 보이는 <u>팔부 바지</u> 를 잘못 입으면 칠칠맞아 보일 수도 있다.
품절[品切, ←品切れ(しなぎれ)]	● (물건) 없음	인기가 많아 상품이 모두 <u>품절</u> 되었다.
할인[割引, わりびき]	● 할인	옷을 <u>할인</u> 할 때 사면 때로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사는 경우도 있다.
할증료[割増料, ←割り増し料 (わりましりょう)]	● 웃돈, 추가금	저녁 12시가 넘어 택시를 탈 때는 <u>할증료</u> 를 내야 한다.